

지표로보는 미국의 중간선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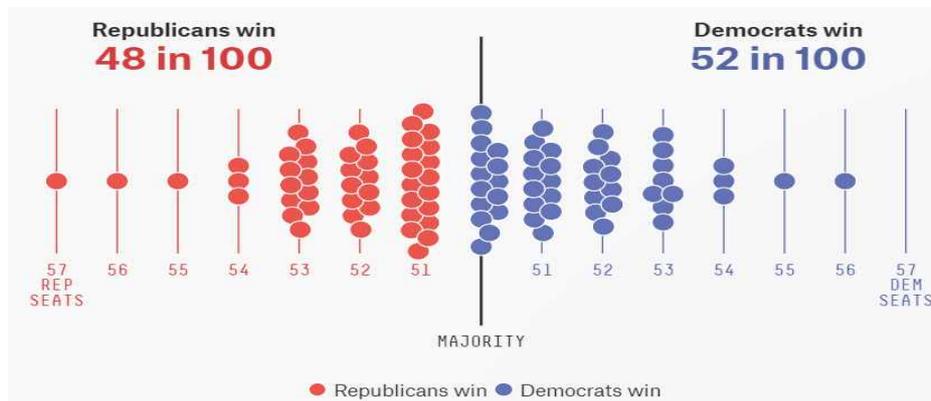
워싱턴 입법관
2022.10.28

오는 11.8일 미국은 조바이든 대통령 4년 임기 중 2년째 실시하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를 앞두고 있음. 중간선거 대상은 연방의회 의원 및 주지사 등을 포함하는데 이하에서는 연방의회 의원선거만을 대상으로 함. 이번 미 중간선거는 상원의 경우 총 100석중 35석(민주당 14석, 공화당 21석), 하원 435석 전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함. 중간선거는 여론조사, 경제적 지표, 과거 선거의 패턴 등을 기반으로 분석되며 이하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및 중간선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고 보도되는 지표를 소개함

1. 여론조사 결과

정치여론조사 전문매체 ‘FiveThirtyEight’에 따르면, 10.28 현재 상원의 경우 100번의 시뮬레이션 중 48번이 공화당, 52번이 민주당이 각각 다수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평균 의석수는 50:50의 박빙의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할 때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

<11.8 미 중간선거 상원 의석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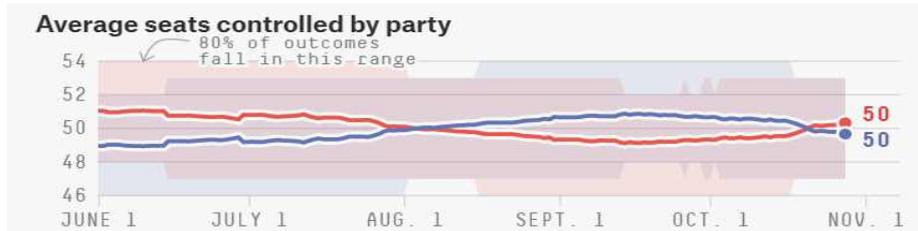


주 : 100번의 시뮬레이션 중 48번이 공화당 승리, 52번이 민주당 승리로 계산됨

자료 : FiveThirtyEight, 2022.10.28.

상원 선거구중 가장 접전지역은 네바다(민), 펜실베니아(공), 조지아(민)임. 이 지역에서 민주 또는 공화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 따라 상원의 다수당이 결정됨.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으나, 민주당은 2024년 대선 승리를 위해 특히 펜실베니아에서 의석을 차지하기를 희망함

<11.8 미 중간선거 상원 의석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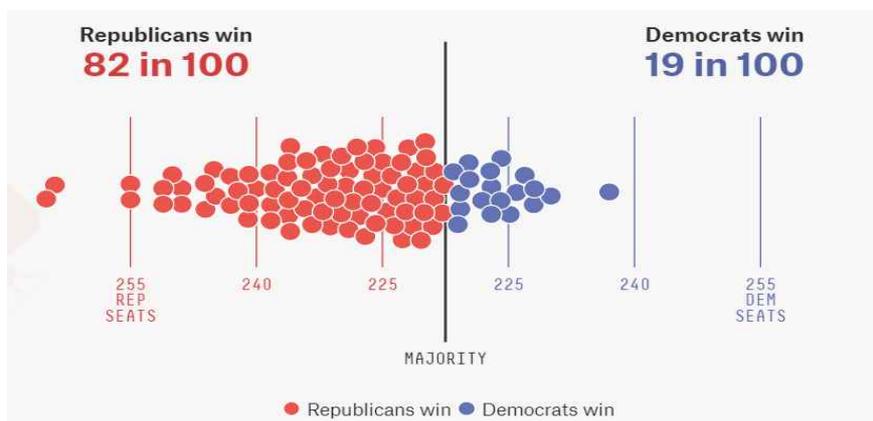
주 : 중간선거 결과 상원 100석 중 각 당의 평균 예측의석수는 공화당 50석, 민주당 50석임

자료 : FiveThirtyEight, 2022.10.28

한편, 접전지역 다섯 곳 중 강력한 민주당 현직 인사들이 뛰고 있는 애리조나, 뉴햄프셔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현재 공화당 의원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위스콘신은 초접전 상황이기도 하나 10.28 현재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원의 경우 ‘FiveThirtyEight’ 에 따르면, 100번의 시뮬레이션 중 82번이 공화당 승리, 19번이 민주당 승리로 전망됨.

<11.8 미 중간선거 하원 의석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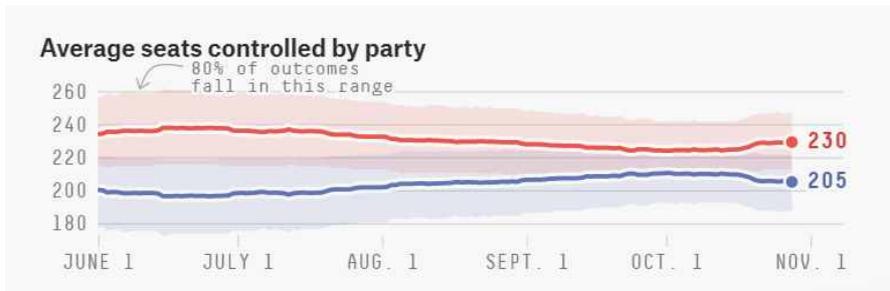


주 : 100번의 시뮬레이션 중 82번이 공화당 승리, 19번이 민주당 승리로 계산됨

자료 : FiveThirtyEight, 2022.10.28.

의석수로 보았을 때 중간선거 결과 하원 435석 중 각 당의 평균 예측의석수는 공화당 230석, 민주당 205석인바, 다음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다수당의 지위를 공화당에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11.8 미 중간선거 하원 의석 예측>



주 : 중간선거 결과 하원 435석 중 각 당의 평균 예측의석수는 공화당 230석, 민주당 205석임
 자료 : FiveThirtyEight, 2022.10.28.

2. 미 중간선거와 관련된 지표

미국 중간선거 예측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각 정당에 대한 평가와 기대 이외에도 사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경제적 지표, 과거 선거의 패턴 그리고 “미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등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토대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짐

1) 미국이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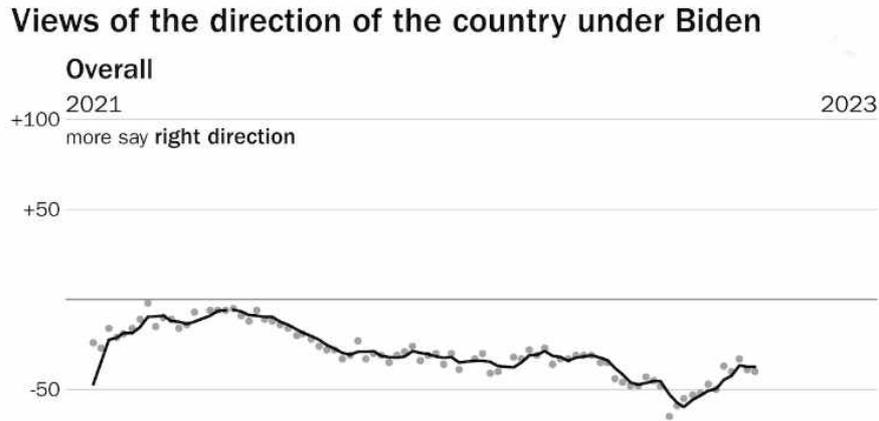
“Do you think the nation generally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or do you feel things are off on the wrong track?”

지난 2022.8 미국 언론사 NBC의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21%가 미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74%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대답하였음¹⁾. 동 여론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

1) <https://nbcmontana.com/news/nation-world/poll-majority-of-americans-say-country-is-headed-in-the-wrong-direction>

으로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현재 미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해석하는데 많이 인용됨

<바이든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평가>



자료 : 워싱턴포스트, 2022. 9.16

2)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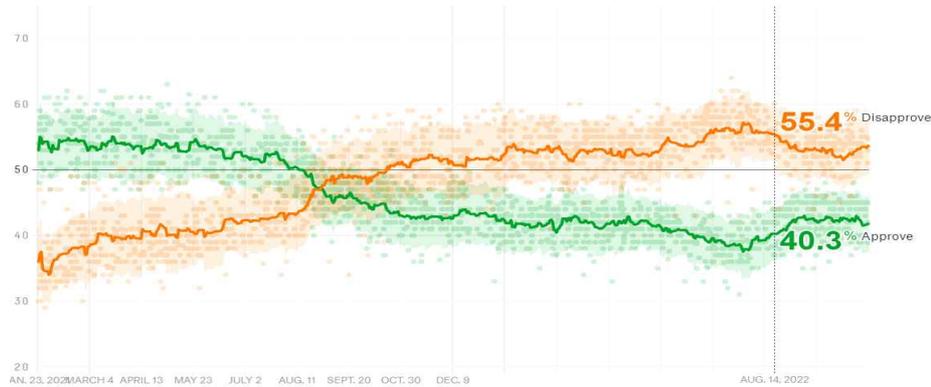
“Do you approve or disapprove of how Biden is doing as president?”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에 머물러 있는 경우, 매체는 “물속에 잠겨있다(has been underwater)” 라고 표현하기도 함.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시 50% 중반에서 지난 2021. 7월말 37% 대로 떨어졌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계기로 10.11일 42%대로 회복하였음. 이후 중간선거 이전 마지막으로 발표된(10.14) 9월 근원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로 인해 보다 강력한 통화긴축이 예상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 10월 중순이후 지지율은 다시 하락하여 10.26 현재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은 40.3%를 기록함.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2156173-220455-nbc-news-august-poll-82122-release>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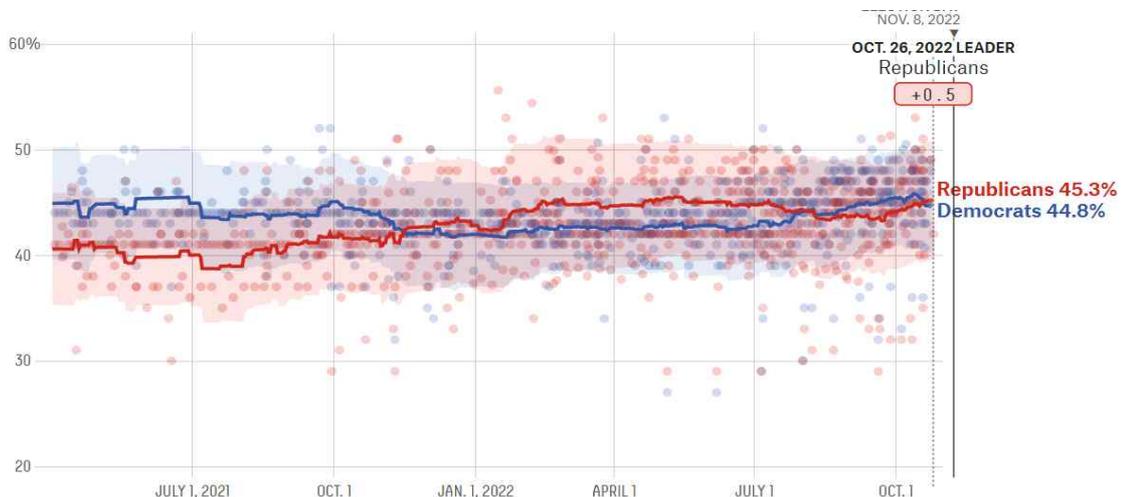


자료 : FiveThirtyEight, 2022.10.26.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년 넘게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Biden has been underwater'),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양원 중 한 개라도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대통령의 정책추진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한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2021. 8월 이후 하락하면서 2021. 11월을 기점으로 공화당에 비해 줄곧 열세였다가, 2022. 7월 이후 회복하기 시작하여, 10.11일 현재 민주당 45.8%, 공화당 44.8%로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1.0%p 앞서다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10.26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44.8%로 다시 공화당(45.3%)에 역전당함

<민주·공화당 지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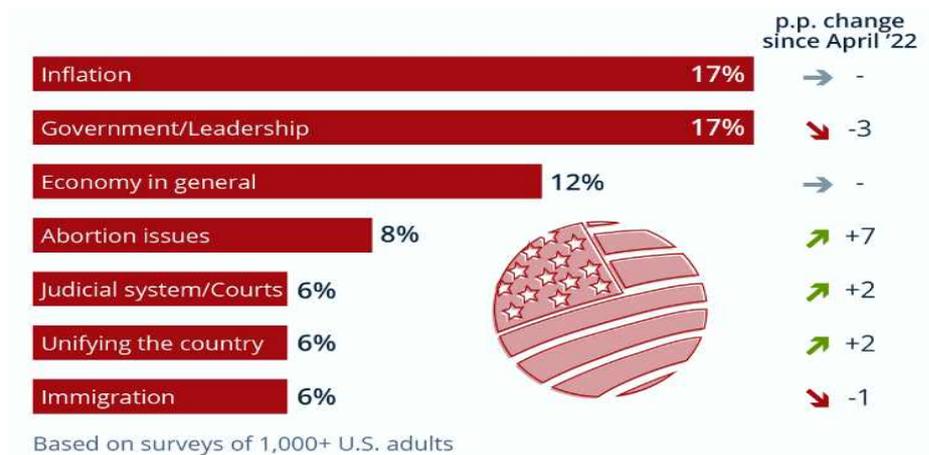
자료 : FiveThirtyEight, 2022.10.26.

하원의 경우 각 주 단위로 선거가 치러지는 상원 선거와 달리, 전국 435개 선거구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양당에 대한 지지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같은 전국 단위 조사 결과에 상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함.

3) 국가가 직면한 중요 이슈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facing this country?”

<미국이 현재 직면한 중요한 이슈>



자료 : Gallup, 20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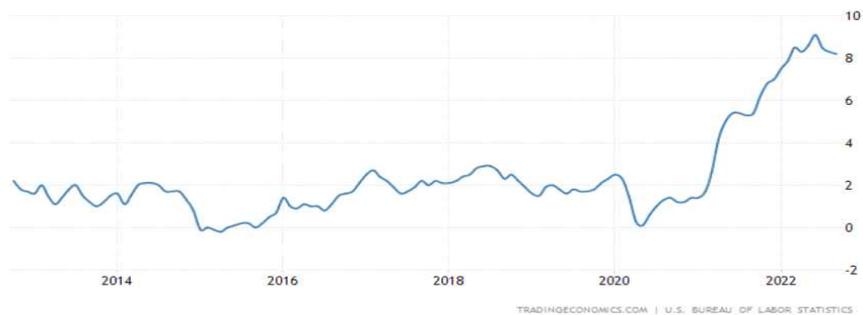
여론조사기관 갤럽(Gallup)은 지난 7월 미국 성인을 상대로 조사한 “미국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라는 조사에서, ‘인플레이션’이 17%, ‘경제전반’ 이 12%로 경제문제가 상위권에 자리잡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음. 한편, 9월 조사한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에 대한 설문에서는 “(jobs and economy)일자리와 경제” 가 35%로 1위를 차지하였음.

‘낙태 문제’는 4월 응답자의 1%에서 7월 8%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큰 변수로 여겨지고 있는바,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사법 시스템과 법원’을 국가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로 선정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졌음. 이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로 분석되고 있음.

4)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은 현재 40년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대처 능력은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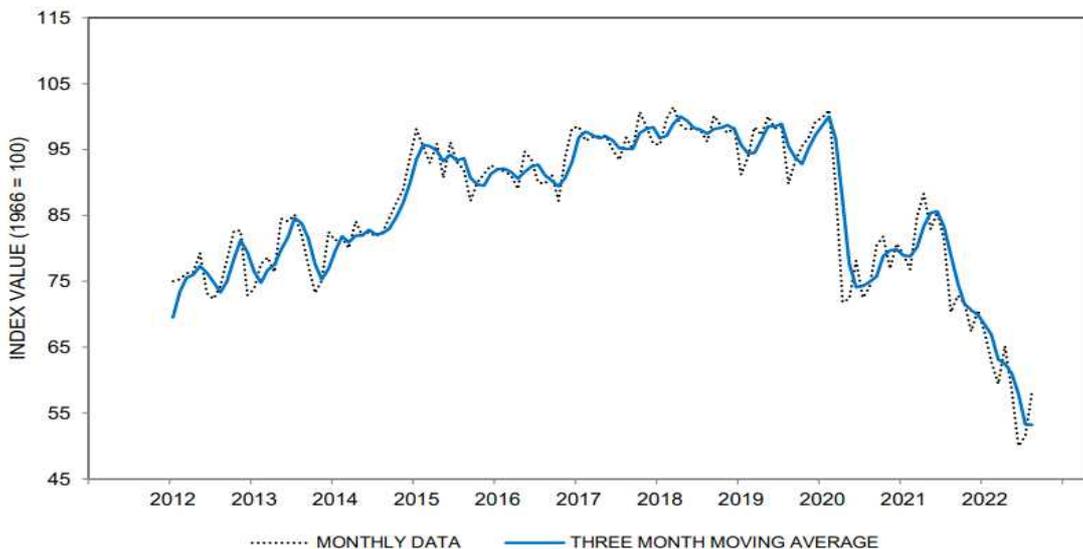
<미국의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자료 : Trading Economics, 2022.10.25.

한편, 미국의 가장 최근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는 2022.10 현재 59.8로 지난 10년간의 수치와 비교시 가장 낮은 수준임.

<지난 10년간 미국인의 소비자 신뢰 지수>



자료 : Michigan University, Survey of Consumer, 202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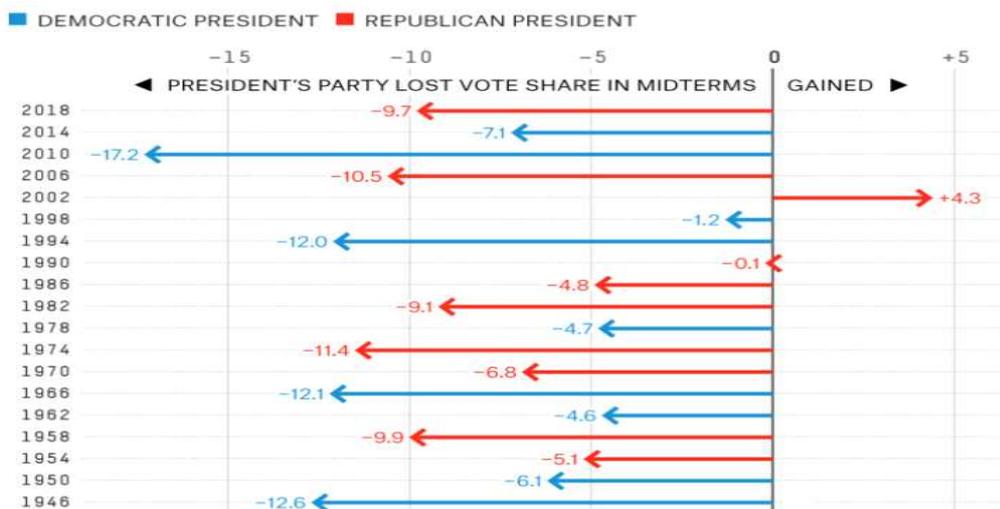
소비자신뢰지수는 경제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측정하며, 전체 경제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비자의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지수임. 이 수치가 높으면 소비자가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이며, 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5) 중간선거 결과 추이

미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는 ‘중간저주(midterm curse)’라고도 불릴 정도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중간선거 투표결과 지속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였음. 지난 70년간 19번의 중간선거에서 단 한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 소속 정당이 적게는 마이너스 0.1%p 많게는 17.2%p의 득표율 상실을 경험하였음.

선거분석가들은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원들은 “쿵쾅거렸다(Thumping)”,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원들은 “포격을 받았다(Shellacking)“,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원들은 “블루 웨이브(Blue Wave,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에 묻혔다 “고 표현하기도 함2).

<대통령 소속정당의 중간선거 결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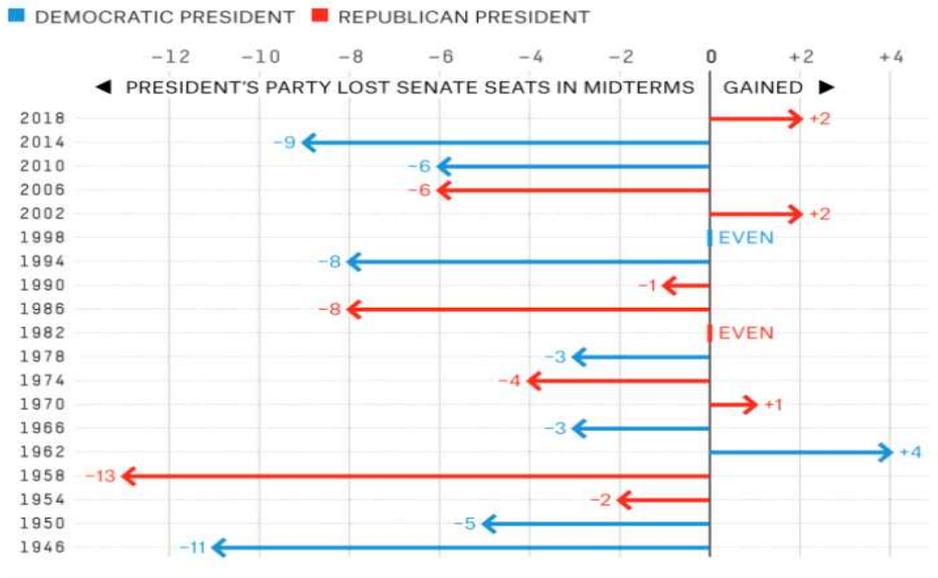


자료 : FiveThirtyEight, 2022.1

2) FiveThirtyEight, 2022.1, 선거분석가 Geoffrey Skelley, Nathaniel Rakich의 분석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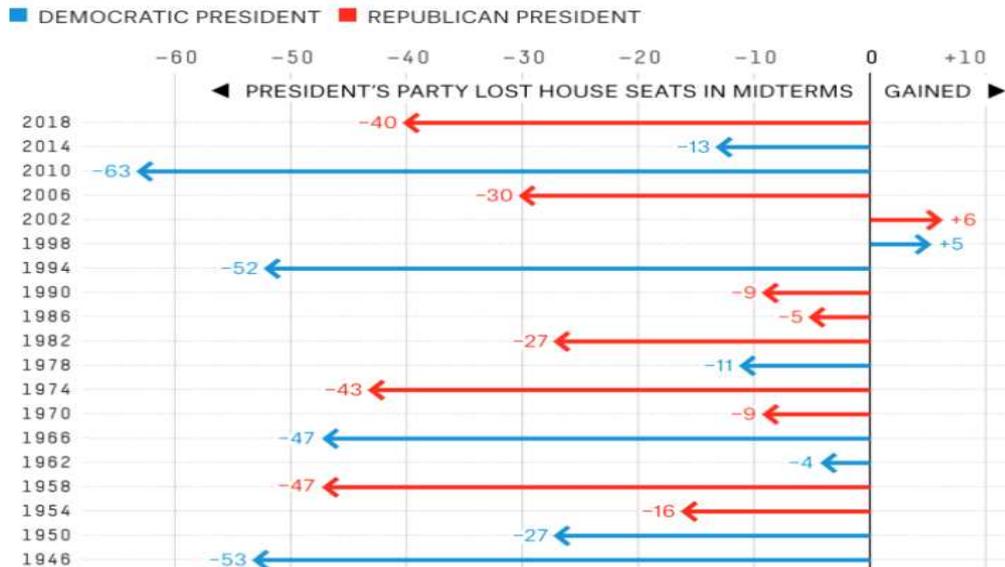
상하원 의석수 점유율과 관련하여서, 19번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정당의 상원은 적어도 6번 의석을 이전보다 더 점유하였거나 동석을 유지한 반면, 하원의 경우 단 두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 이전에 비해 의석을 상실하였음.

<중간선거 결과 대통령 소속정당 상원 의석수 변화 추이>



자료 : FiveThirtyEight, 2022.1

<중간선거 결과 대통령 소속정당 하원 의석수 변화 추이>



자료 : FiveThirtyEight, 2022.1